

The Virginia Woolf Society of Korea Newsletter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제47호(2025년 4월 14일)

VWSK NEWSLETTER

www.woolf.or.kr

연 구 편

☯ 2025년 여름 한일 울프 학회

2025년 8월 23일, 일본 츠루대학(Tsuru University)에서 제6회 한일 공동학술대회가 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델러웨이 부인』 100주년을 기념으로 한 학술대회 제목은 “Virginia Woolf and Our Future: *Mrs Dalloway's* Centennial and Beyond”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영국 버밍엄대학교(Birmingham University)의 Max Saunders 교수님의 특별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버지니아 울프 학회 소속 연구자 두 분과 한국 울프 학회 소속 연구자 두 분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비롯해 다수의 일본의 연구자와 우리 학회 연구자들의 흥미로운 발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표자가 아니어도 참석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sites.google.com/view/woolf-conference-2025/home>

아울러, 올해 봄 정기학술대회는 본 공동학술대회로 대체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4회 MSIA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회 회원 김부성 선생님께서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신 Modernist Studies in Asia Network(MSIA)의 학술대회가 오는 6월 26일-27일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Modernism and Language입니다.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Date: June 26-27, 2025

Place: 이화여자대학교

Keynote Speakers:

- Rebecca Walkowitz (Barnard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Janet Poole (University of Toronto)

Roundtable Panelists:

- Christopher Bush (Northwestern University)
- Beci Carver (University of Exeter)
- Mi Jeo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 Nan Zhang (University of Hong Kong)

버지니아 울프 관련 해외학자들의 발표도 다수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을 원하시는 울프학회 회원분들께서는 김부성 연구이사(boosungkim@ewha.ac.kr)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초청강연 안내

특히 모더니즘 및 연구에서 탁월한 연구를 발표해온 Rebecca Walkowitz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도 다음의 제목으로 초청강연을 하실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연 일시: 6월 30일 (월) 오전 11시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신양학술정보관 302호

강연 제목: The Impact of World Languages

편 집 편

☞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지 논문 투고

-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회원은 울프에 관한 논문을 『제임스조이스저널』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여름호(29권 1호)가 지난 6월 30일에 출판되었습니다.
- 버지니아 울프나 제임스 조이스 관련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은 12월 31일 발행 예정인 등재학술지 『제임스조이스저널』 29권 2호에 투고해주시고, 논문 마감일은 11월 20일입니다.
- 『제임스조이스저널』은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논문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투고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JAMS(<http://joycesociety.jams.or.kr>)에 직접 접속하셔서 원고를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JAMS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가입승인을 받은 후 '신규논문제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투고하실 때에는 개인 인적 사항을 삭제한 논문 파일을 먼저 탑재하시고, 논문유사도검사를 진행하신 후 검사결과서도 반드시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원고작성 및 기고 규정은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홈페이지 내 해당 항목(<http://www.joycesociety.or.kr/contents/jjsd06.php>)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편집이사 김승현(ewelty2013@gmail.com)

정 보 편

- 울프 학회 홈페이지는 휴대전화나 태블릿PC에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자주 들르셔서 좋은 정보와 이야기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 무 편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 본 학회는 울프의 대중화를 위해 일반인에게도 열려 있으며, 회원가입은 전문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월 회의에서 대학원생 회비는 받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 회원가입 신청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이미 정 총무이사 (mijeonglee@snu.ac.kr)에게 보내주십시오.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30만원

입금계좌: 카카오뱅크(3333-10-0809309)

예금주: 신광인(재무이사)

♥ 평생회비를 입금하실 때 성명 뒤에 “(평생)”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연회비 납부를 미뤄 오신 분께 회비납부 부탁드립니다.

♥♥♥ 기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독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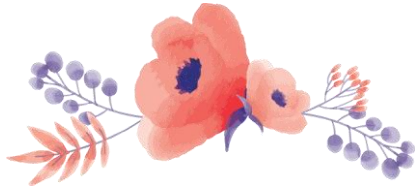
☯ 번역 독회

Collected Essays, Volume Two 수록 에세이 번역 독회를 4월부터 재개했습니다. 다음 일정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5/3 토요일: How it Strikes a Contemporary 김영주 선생님 (cont'd)
 - <https://snu-ac-kr.zoom.us/j/87124715800>
 - 회의 ID: 871 2471 5800
- 6/14 토요일: The Narrow Bridge of Art 김금주 선생님
 - <https://snu-ac-kr.zoom.us/j/85852445109>
 - 회의 ID: 858 5244 5109
- 7/4 금요일: The Modern Essay 이주리 선생님
 - <https://snu-ac-kr.zoom.us/j/88136589061>
 - 회의 ID: 881 3658 9061

■ 8 대 임원 명단

회장	손영주(서울대)		
부회장	김금주(연세대)		
총무	이미정(서울대)		
재무	신광인(청주대)		
연구	김부성(이화여대)	이주리(전남대)	임태연(홍익대)
	박신현 (건국대)		
편집	김승현(서울대)	손일수(부산대)	이정화(조선대)
	정서현(카이스트대)		
기획	김요섭(군산대)	김윤정(한국외대)	박형신(경북대)
	손현주(서울대)	임현주(고려대)	전미경(명지대)
	조성란(前 경희대)		
정보	최석영(서울대)	한솔지(경북대)	
고문	김정(前 가톨릭대)	박희진(前 서울대)	이귀우(前 서울여대)
	정덕애(前 이화여대)	정명희(前 국민대)	진명희(한국교통대)
감사	김영주(서강대)	박은경(충남대)	오진숙(연세대)
	이순구(前 평택대)		



일곡문화재단 최재선 회장님 추모

오랜 기간 한국 버지니아 울프 학회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일곡재단의 최재선 회장님께서 최근 별세하셨습니다. 이에, 울프 학회 전 회장인 김정 선생님의 추모사를 아래에 실었습니다.



‘빛’이 된 인연

최 재선 회장님을 추모하며

지난해 연말즈음 학회로부터 최 회장님의 작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번잡스럽게 하지 말라는 회장님의 뜻에 따라 부음은 몇 주가 지난 후에야 학회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조문을 하지 못한 현 학회 임원진과 최 회장님을 익히 아는 학회 고문 회원들 모두 황망하면서도 참으로 회장님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던 생전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최 회장님과 저희 울프 학회는 통상의 후원자와 후원 수혜 단체라는 건조한 관계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출발했다는 점이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지 싶습니다. 그 바탕에는 저희 학회의 대모이신 박 희진 선생님과 최 회장님의 인간관계, 즉 두 분께서 서로의 사심 없는 진정성에 깊은 신뢰와 경의가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학회를 창립하고 재정문제로 고심하는 정 명희 초대 회장의 고충을 듣고 박 선생님께서 일곡문화재단을 찾았던 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재단의 주력사업이 아닌 학술단체, 그것도 서양 작가의 이름을 단 단체의 후원이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을 갖고 최 회장님을 만난 박 선생님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 회장님의 포용력 있는 인품 때문이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장님은 소정의 학회 기금과 매 학술 대회 개최 때마다 일정의 후원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후 학회는 큰 재정 압박 없이 매년 두 번의 정기 학술대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학회는 회장님의 후의를 기념해 회장님의 아호를 딴 '일곡 논문상'을 제정해 격년으로 최 회장님을 모시고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 학회와 회장님을 이어 준 가장 단단한 인연은 공식적인 재정 후원보다 더욱 값지고 따뜻한 진정 어린 격려였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moral support가 되겠지요). 회장님은 꼭 일 년에 한두 번씩은 회원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며 마음을 담아 후원하셨습니다. 회원들과 이야기하기를 즐겼던 회장님과는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만 그 중 기억에 남는 한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자신이 관계하는 수많은 단체나 여러 모임 어느 곳보다 울프 학회에 와서 보고 듣고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편안하고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실체도 없고, 사실도 아닌 문학작품을 놓고 때로 모호한 수사로 논의를 펼치는 발표 내용을 듣다 보면 이런 논의가 어떤 실제적 유용성이 있는지 가끔 의문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사업가의 길을 가느라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창조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문학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불려다 주는 열정이야말로 회장님에게는 순수한 즐거움이자 절묘한 유용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회장님이 저희 학회를 높이 사고 싶은 모습은 회원들이 이해득실이 게재되지 않는 순수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직을 떠난 회원들이 조금씩 뒤로 비켜나면 젊은 회원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면서 20여 년을 이어가는 학회와 함께하는 자리야말로 자신을 위해 비워놓는 가장 쓰임이 값있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이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빛'이 되는 인연을 베푸시고 조용히 떠나신 회장님과 같이했던 시간은 저희 울프 학회 회원 모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할 것입니다. 회원 모두 그 마음을 모아 회장님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김정.

